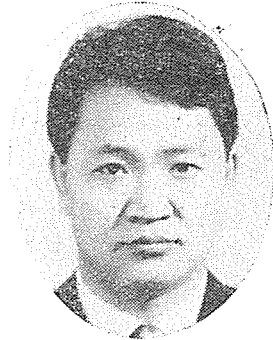




M. I. T. 는 지옥인가?



尹 德 龍 博士
韓 國 科 學 院

Boston에서 Charles 강을 건너 Cambridge 쪽으로 보면 중앙에 둥근 dome이 있는 회색 건물이 있다. 어떤 사람은 박물관 같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감옥소 같다고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M. I. T. 이다. 다리를 건너 가까이 가면 회색 본관 주위에는 꽃이 만발할 때가 많고 운동장 옆에는 현대식 건축의 강당과 조그만 교회당도 있고 정구장에는 날이 더울때면 운동을 즐기는 학생도 보인다. 그런데 이 M. I. T. 학부 학생들은 자기 학교를 “지옥”이라고 별명 삼아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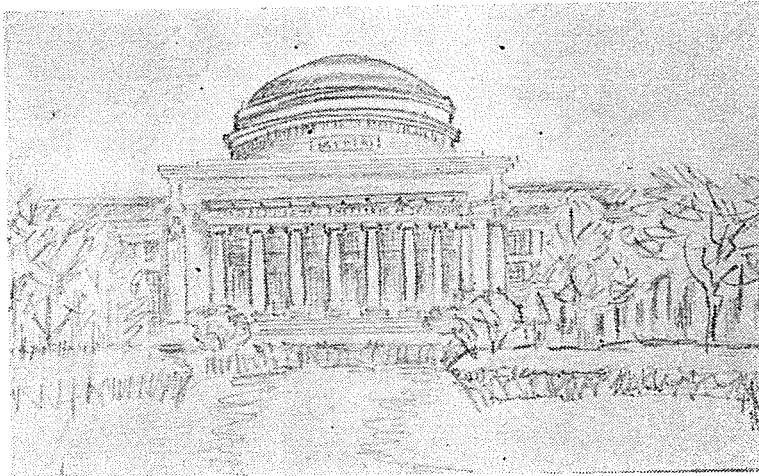
렀다.

“지옥”에 애착을 가질 수도 있을까?

1958년 9월 나는 그 해 학부 일학년 900명 중에 끼어 M. I. T. 에 들어 갔다. 며칠 동안 Fresh man orientation을 하면서 “…… technology, technology.”라는 M. I. T. 노래를 가르쳐 주었는데 그 후에는 불러보거나 들어 본 적도 없었다. 세계적인 학자와 대면을 시켜준다고 하며 Norbert Wiener가 학술 강연을 하였는데, 우리 일학년의 모임을 cybernetics 전문가 회의로 착각을 하는 모양이었다. 900명 중 반이 고등학교를 1등이나 2등으로 졸업하였고 900명 중 약 600명만이 M. I. T. 졸업할 것이라는 예언도 들었다.

일학년에서는 물리, 화학, 수학, 인문이 필수였고 선택 과목이 하나였다.

물리강의를 맡은 Uno Ingard 교수는 21세에 박사 학위를 받았고 스웨덴의 높이뛰기 올림픽 선수였다는데



<그림> 필자가 직접 그린 M. I. T. 本館 전경

사람이 썩썩하고 강의도 잘하여 인기가 좋았다. 인문 과목에서는 지성인을 만든다 하여 그리이스 비극, 플라톤부터 Locke, Kant, Machiavelli, Cellini등을 읽어대었고 토론도 하였다.

개학한 지 한달이 지나서 시험이 시작되었다.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한시간씩 물리, 수학, 화학을 번갈아가며 일학년 전체가 시험이 있었고 그 외에 과목에서도 수시로 시험이 있었다. 물론 중간 시험과 학기말 시험은 따로 있어 일년은 매일 숙제와 시험으로 보내는 기분이었다. 숙제는 가장 잘 하는 학생이 열심히 하여도 할수 없을 만큼 양을 많이 내 주었다. 그 외에 물리와 화학 실험이 각각 한주에 세시간씩 있어 각 실험마다 report 을 내야 했고 인문 과목에서는 긴 작문을 써 오라고 하였다.

처음에는 이런 긴장된 생활을 도저히 계속 감당할 것 같지 않았으나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활에 익숙해 졌고 그런 버릇을 길러 주려는 것이 교육의 목표인 것 같았다. 어떤 때 어려운 시험이나 숙제를 치르고 나면 “내가 이 정도로 할 수 있었구나” 하고 느끼는 적도 있었다. 대부분의 학생은 고생을 하며 따라갔으나 어떤 학생은 적응을 못하고 포기 상태로 밤낮 텔레비만 보는 학생도 있었다. 일학기에는 물리와 수학에서 각각 200명 가량씩 F를 받는 학생이 나와 야단났으나 하도 낙제생이 많으니까 낙제한 것이 별로 수치스러운 것은 아니였다. 내 옆방에 있던 한 친구는 고등학교를 일등으로 졸업하고 장학금을 받고 왔다가 낙제를 몇번 거듭하더니 이학년이 되어 하루는 울면서 짐을 싸 가지고 집으로 간 뒤 소식을 모르게 되었다. 그러나 그 중엔 기발한 친구도 많았다. 한 친구는 물리 전공을 하며 한학기에 수학, 화학을 합쳐 여덟 과목을 택하여 전부 A를 맞곤 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유도도 매일 하면서 잘 당해 내었다. 하루에 다섯시간만 자도 꿈쩍안하고 점심을 먹으면 즐린다고 아예 안 먹고 지냈다. 나중에 이 친구는 M.I.T.에서 박사까지 하고 조교수도 하였으나 그 후는 소식이 없는 것을 보니 최종 경쟁에서는 못 이겨낸 모양이다, M.I.T.에서는 Darwin의 생존 경쟁에 관한 이론을 정말 경험할 수 있

었던 것 같다.

시험을 볼 때나 실험에서 논리적인 사고를 못하면 즉시 벌이 내렸다. 그리하여 심리학 연구에서 쥐를 훈련시키 듯이 우리 학생들은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기계나 동물로 만들어 버리려는 것 같았다. 어떤 교수들은 학생들이 상상력이나 창조력을 기를 수 있는 여유가 너무 없다고 격정도 하였다.

학생들이 졸업할 때는 거의 지쳐 빠진 기분이 고 정말 4년을 감옥생활을 한 기분이이다. 그 경험에서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그 경험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모든 고생이 좋은 경험인 것처럼 M.I.T.의 학생 생활도 보람이 있었다고 할까. 아무튼 그런 것을 미리 알았다면 엄두도 못 냈을 것 같다.

지금은 M.I.T.도 많이 달라졌다. 학생들에게 많은 여유를 주어 독창력을 길러 주려는 모양이다. 스파르타적인 분위기가 없어진 대신 나태한 인상을 줄 정도이다. 결국 M.I.T.도 시간의 변화에 적응하려는 것인지. 도리켜 보면 M.I.T. 교육의 고민은 자율성과 자유로운 독창력을 어떻게 동시에 길러 주는가 하는 문제였던 것 같다. 고생 중에도 한가지 다행이었던 것은 M.I.T.에 영감이 떠 돌았다. Norbert Wiener부터 Aldous Huxley가 우리 학생들과 같이 지냈고 1961년 백주년 기념 때에는 Nobel 상 수상자 베명이 “Are we Approaching the End of Science?” 라는 제목으로 토론을 하였고 옆 강당에서는 Robert Oppenheimer, Paul Tillich, Jerome Bruner, Aldous Huxley가 “How Did Science Change Man’s View of Himself?”라는 제목인 가를 가지고 야단스럽게 토론을 하였다. 그 때 Herman Kahn 이 내 옆에 앉아 열심히 웃던 생각이 난다.

아무튼 M.I.T.의 4년은 심심한 날들이 아니였다. 지금도 일학년 물리 시험 문제 생각이 나면 자다가도 정신이 깬다. 마치 어렸을 때 겪은 전쟁의 순간을 기억하는 것 같이 내가 M.I.T.에서 얻은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능력의 한계에 매일 부딪쳐 체험한 것이다.